



■ 전국체전 이모저모

■ 15개 시·도 체육회 사무처장들이 말하는 광주체전

선수단, 관중 환호에 모자 선물

○전국체전 폐회식이 열린 14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상식을 위해 입장하던 선수들이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에 모자와 깃발 등을 전달해 주며 답례했다. 폐회식 첫 번째 순서였던 16개 시·도 선수와 해외동포 선수들의 입장 순서에서 월드컵 경기장 S구역 B열 앞을 지나가는 선수들에게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자 30여명의 선수들이 달려와 기념품을 전해준 것. 경기도 기념모자를 받은 김아름(10·광주시 서구 금호동)은 "생각지도 않은 값싼 선물을 받아 기분 좋다"며 "내년 여수에서 열리는 체전에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폐회식에 시·도 홍보 현수막 눈길

○이번 폐회식에는 선수들이 소속 시·도를 알리는 홍보 현수막을 준비해 관중의 눈길을 끌었다. 전남 선수단은 '여수엑스포 유치로, 해양강국건설!!'·'제89회 전국체육대회 녹색의 땅 전남에서 만나요!'라고 적은 현수막을 통해 2012 엑스포 유치기원과 2008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을 빌었다. 경북 선수단은 '2007 경북방문의 해 천년의 빛 천년의 창'이 써진 대형 현수막을 들고 입장해 경북 방문의 해를 알렸고, 이번 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한 경기도 선수단은 '경속 종합우승 첫 6연패 달성'이 적힌 현수막을 제작, 우승을 자축했다.

대회 막판 순위다툼 열기 후끈

○주말과 휴일 화창한 날씨 속에 많은 인파가 경기장을 찾아 체전 마지막까지 열기를 이어갔다. 14일 육상경기가 펼쳐진 월드컵 경기장에는 가족단위의 1만 여명의 관중이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는 등 경기장 전역에 응원객들의 발걸음이 계속됐다. 응원에 힘입은 선수들은 선전을 펼치며 연거푸 대회신기록과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관중의 성원에 보답했다.

조선훈 장미공원 선수들 사진명소

○조선훈대학교 '장미공원'이 사진촬영 '명소'로 인기를 끌었다. 축구·하키·레슬링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조선훈대학교를 방문한 선수·임원진들은 하키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장미공원'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냈다. 매년 5월 장미축제가 열리는 이곳에는 화창한 날씨로 인해 장미가 꽃망울을 터뜨린 채 아직까지 남아있어 체전을 찾은 선수단의 이목을 끌었다.

경주마 연습 중 가로등에 충돌

○연습중이던 경주마(馬)가 가로등에 깔리면서 119구조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3일 오전 9시50분경 염주체육관 승마장에서 몸을 풀던 경주마(마명 로렌스)가 체전 자원봉사자들을 보고 놀라 울타리를 뛰어넘다가 경기장에 설치된 가로등과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로렌스를 덮쳤고, 탈출을 시도하던 로렌스는 왼쪽 뒷발목 인대가 끊어져 전문 병원이 있는 부산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다. 부상을 입은 이 말은 이번 체전에 광주대표 예비마로 참가했다. /전국체전특별취재단

“좋은 시설·친절한 시민덕에 최상의 경기 펼칠 수 있었다”

“훌륭한 경기 시설과 자원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를 펼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개최도시인 광주시를 제외한 15개 시·도 체육회 사무처장들은 전국체전 폐막 일인 14일 '2002년 한·일 월드컵이라는 국제대회를 치러낸 경험과 시설이 선수들의 기록향상에 도움이 된 듯 하다'며 대체로 만족스러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예향의 고장'이라는 광주의 이미지를 전국의 선수들에게 한층 더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총장로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남도지방의 빼어난 음식도 선수들의 사기 증진에 한 몫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부회 경기도 체육회 사무처장은 "무엇이든 친절해 대대해주고 안내해주는 자원봉사자들께서 아늑함을 느낄 수 있었고, 곳곳에서 펼쳐진 다양한 수준급 문화 행사도 인상깊었다"며 "맛있는 음식 때문에 광주의 테마를 '음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번 체전을 극찬했다. 서울 체육회 이이재 사무처장은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었다"며 "광주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자치단체지만 대회는

영 노하우는 아주 잘 갖춰졌다"고 말했다. 반면 숙박요금과 홍보 등에 문제가 있어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지로 선정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명기자 kps@kwangju.co.kr

특히 15개 시·도 사무처장들은 숙박의 경우 선수단이 3개월 전 미리 광주를 방문해 계약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이 요금을 2배가량 부풀려 받는 등 황포가 가장 심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체전 특수를 노린 일부 업체들의 욕심으로 인해 광주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셈이다. 또 경기장 안내관 부족과 체전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체전 분위기가 나지 않았고, 일부 심판들의 편파관정으로 대한 체육회에서 지정한 '체육회 자정(自淨)의 해'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울산 체육회 신규와 사무처장은 "심판과 집행부들이 각성하지 않는다면 '체육회의 자정'은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며 "선수의 사기 진작과 육성을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심판들이 일부 종목에서 편파 판정을 일삼아 체육발전이 오히려 후퇴할 듯 하다"고 안타까워 했다. /광명기자 kps@kwangju.co.kr

최경주 신한동해오픈 우승

1년만에 한국을 찾은 한국프로골프의 간판 최경주(37·나이키골프·사진)가 고국팬들에게 우승컵을 선물했다. 최경주는 14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남코스(파72·7천544야드)에서 열린 제23회 신한동해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갈기머리' 석종욱(39·캘러웨이)과 세계랭킹 3위 짐 퓨릭(미국)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석종욱은 11언더파 277타로 2위, 퓨릭은 9언더파 279타로 3위를 차지했다. 챔피언즈에서 샷대결을 벌였던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은 8언더파 280타로 강성훈(20·신한은행)과 공동 4위를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지에 단일 시즌 상금 5억원 돌파

최혜정(23·카스코)이 한국어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8회 하이트립 챔피언십에서 극적인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최혜정은 지난 13일 경기도 여주 블루헤런 골프장(파72·6천40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3라운드에서 버디만 4개를 뽑아내며 4타를 줄여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전날까지 이븐파를 쳐며 공동 8위를 달렸던 신지에(19·하이마트)는 이날 2타를 줄여 2언더파 214타로 공동 5위에 올랐다. 상금 1천400만원을 보태 올 시즌 상금 5억816만원이 된 신지에는 한국 남녀프로골프 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상금 5억원을 돌파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두산 “먼저 1승”...프로야구 PO 1차전

'최고투수' 다니엘 리오스를 앞세운 두산 베어스가 '발야구'를 마음껏 펼치며 한국시리즈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두산은 14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2007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선발투수로 나선 리오스의 호투속에 잠깐 14안타를 몰아쳐 8-0으로 한화를 완공했다. 5전 3선승제의 단거리전에서 1차전 승리를 기점으로 두산은 한화와 포스트시즌 상대전적에서 과족의 6연승을 기록하며 2년만에 한국시리즈 진출을 바라보게 됐다. 1986년부터 시작된 플레이오프는 지난 해까지 23차례 열려 1차전을 승리한 팀이 17차례나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성화호, 일본과 평가전 0-3 완패

박성화호가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에 아시아 최종예선 시리아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치른 일본과 평가전에서 완패했다.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은 1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끝난 일본 올림픽대표팀과 비공군 연습경기에서 수비 불안에 드러내며 연속골을 내지 0-3으로 졌다. 이날 경기에 박주영(서울)은 출전하지 않았다. 올림픽대표팀은 17일 오후 10시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B조 4차전을 치른다. C조 선두인 일본은 카타르와 원정경기를 갖는다. /이현주기자 ajh@kwangju.co.kr

해외동포 선수단 “광주와 인연 계속 이어가야죠”

광주시 초청 간담회서 소감

광주시체육회는 체전 폐막일인 14일 광주 금수장호텔에서 '해외동포 선수단 임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번 체전에서 선전을 펼친 해외동포 선수단을 격려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나부석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우승을 차지한 호주동포선수단 여러분께 축하를 전한다”며 “조국의 큰 잔치를 빛내주기 위해 멀리서 찾아주신 모든 동포선수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해 재호주 대한체육회 강대원 회장은 “1987년 재호주 체육회를 설립하고 제68회 광주 체전에 처녀 출전했는데 20년이 지난 광주에서 첫 우승까지 차지해 너무 기쁘다”며 “광주시체육회와 맺은 자매결연을 통해 이 지역의 스포츠 꿈나무들을 돕고 광



주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폐막식을 끝으로 광주를 떠나는 해외동포 선수단은 “광주의 '맛'과 '친절'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동포 선수단 이용목 총감독은 “이번 체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머니 손

대인동업부동산
(TEL)223-1140, 5210번 011-602-2522
(광주동업 신촌점, 대인동업 신촌점·대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
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
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
표적이지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
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
안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등공인중개사
(TEL)383-5221, 011-609-5221
(상무지구 입구)
● 건물투자
● 분양투자 (상무지구)
● 토지매매
● 아파트매매
● 상가매매 (상무지구)
● 임대(농장)
● 공장,창고 및 기타
● 주유소 부지

금보부동산컨설팅
(TEL)011-8940, 011-602-2233
(신수동 543-51(두림터)입구 상가거리)
토지매매
건물매매
고시원매매
주유소매매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정효율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자선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Tel:062)973-9174, 016-757-8800
전용가능한사업부지
우당밀야
첨단지구 상업용지 = 205평 500평 =
● 광주 정성권 토지 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1-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한일지도판매(주)
(TEL)528-1409, 528-1409, 528-1409
2007 최신 협본(중·내·외국 정경·담양·협본)
지번도 책 판매중
이번에 제작한 협본책은?
① 광주광역시 전지역 재개발·도시계획·용도지역·하남4공단
② 나주시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2차
③ 화순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④ 장성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개발예정인 정성남면
⑤ 담양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2차
⑥ 함평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부자되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갑룡
(TEL)655-8249, 011-9618-9691
1. 광제빌딩상가 임대
2. 상가건물매매(금호동 마제마을 4층)
3. 서구 품양동 대지 222.8㎡(67.39평)
4. 서구 품양동 신축 원룸매매
5. 신축 상가 원룸 매매(서구품양동)
6. 서구 금호동 대로집 대지 212.3㎡
7. 경공매 매수신청대리